



신라 진성왕대 효종랑과 화랑도

Hwarang Hyojong() and Hwarangdo() in the ruling years of Queen Jinseong of Silla

저자 (Authors)	박남수 Park, Namsoo
출처 (Source)	사학연구 (132) , 2018.12, 267-312(46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32) , 2018.12, 267-312(4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2073
APA Style	박남수 (2018). 신라 진성왕대 효종랑과 화랑도. 사학연구(132), 267-31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4: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진성왕대 효종랑과 화랑도

박 남 수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머리말

I. 효녀지은 일화의 전승과 그 성격

II. 효종랑과 진성왕 이후의 정치과정

III. 하대 유·불·선의 사조 및 인재 양성과
화랑도의 성격변화

맺음말

- 본 논문은 <2018 경북문화포럼 : 화랑을 꽃피운 '화랑'을 노래하다>(2018.8.2., 경주현대호텔)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 투고일: 2018. 11. 19. ● 심사일: 2018. 11. 20. ● 게재확정일: 2018. 12. 7.
- <https://doi.org/10.31218/TRKH.2018.12.132.267>

요약

본고에서는 신라 멸망기 화랑도의 변화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효종랑의 일화와 그의 정치적 진출 및 하대의 정치과정을 살피고, 당시 유·불·선의 사조 및 인재 발굴의 변화상을 통하여 화랑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삼국사기』 孝女知恩전이 유교적 관념을 투영한 데 대하여, 『삼국유사』 호선편의 貧女養母조는 불교의 효의 관념을 드러낸 것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생전의 효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극락에 왕생하는 공덕을 짓는 것까지를 孝善으로 일컬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종랑의 일화는 진성왕 3년 이후 국가의 군사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국가가 중고기처럼 郎幢에 이들 화랑도 출신을 召募兵으로 부를 만한 여력이 없었음을 살폈다. 또한 박씨왕으로 일컬어지는 神德王은 왕족이었던 진골 귀족 金父謙의 외붓 아들로서 그의 성씨를 따름으로써 신라 정치 사회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는 효종랑 등 균정계의 문성왕 계열의 비호를 받아 쿠데타를 성공시킴으로써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한편으로 효종랑의 일화는 진성왕 초년에 화랑도의 기풍을 살리고자 하는 사조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유학 교육의 강화와 당나라 유학생 파견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종래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화랑도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국가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와해됨으로써 화랑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儒敎의 禮樂이나 道家의 隱逸, 그리고 이미 仙家的인 경향에 빠진 화랑도로서는 신라 사회에 닥친 국난을 극복할 수 없었다.

주제어 : 孝宗郎, 孝女知恩, 孝善, 花郎徒, 神德王, 金父謙, 眞聖王, 崔致遠, 渡唐留學生

머리말

화랑도는 국난기에는 화랑 역사상의 하나의 전형으로서 무사도의 발양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였다. 필자는 신라 화랑도의 설치와 운영, 교육, 그리고 명칭의 갈래 등을 다루었지만, 정작 신라 멸망기의 화랑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는 살피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신라 멸망기에 들어선 진성왕대의 화랑도에 대해서는 화랑도의 사병적 성격을 강조하거나,¹⁾ 歌舞 일변도의 놀이에 치중하고, 국학의 발달로 화랑도의 특권의식이 감퇴된 것으로²⁾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 또한 신라 하대에 사회전반으로 도가적 사조가 유행하면서 ‘仙郎’이란 명칭이 나타나고, 종래의 風月道 또한 風流道로 일컬어지면서 三敎 融會의 고유의 仙風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았다.³⁾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마지막 화랑이라 할 수 있는 효종랑의 일화를 효녀지은의 일화에 덧붙여 언급하고 있다. 이에 신라 하대의 화랑이 사병적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견해를 확대하여 화랑들의 정치적 세력화⁴⁾나 그 활동을 강조하여 왕위계승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견해⁵⁾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화랑도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기왕의 인식과는 분명히 상충한다.

-
- 1) 이기백, 1957, 「新羅私兵考」, 『역사학보』 9;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59~60쪽.
 - 2) 李基東, 1988, 「花郎像의 變遷에 관한 覺書」, 『新羅文化』 5;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306~307쪽.
 - 3) 박남수, 2009, 「崔致遠의 鸞郎碑序와 花郎 관련 諸名稱의 갈래」, 『石門 李基東教授 停年紀念論叢 -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2013,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480쪽.
 - 4) 全基雄, 1994, 「新羅下代の 花郎勢力」, 『신라문화』 10·11, 112~123쪽.
 - 5) 조범환, 1999, 「신라말 화랑세력과 왕위계승」, 『사학연구』 57, 40쪽.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효종량의 일화가 어떠한 배경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효행 내지 효선편에 전하게 되었는지를 양 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에 화랑도가 거느렸던 낭도들을 과연 정치사회적으로 사병이나 고려시대 문객과 같은 성격의 존재로 볼 수 있는지를 기왕의 견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신라 하대의 화랑도에 대한 인식을 당시의 유·불·선의 사조와 관련하여 살피고, 화랑도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인재양성책과 관련하여 살피고자 한다.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I. 효녀지은 일화의 전승과 그 성격

『삼국사기』 열전에는 모두 두 명의 화랑(斯多舍, 官昌)과 두 명의 낭도 출신(金欽運, 劍君)의 전기가 입전되어 있고, 입전무퇴의 정신을 선양한 貴山, 조부 김흠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순절한 아버지 반굴을 이어 목숨을 바친 金令胤과 신라 하대 효녀 지은을 도운 미담의 주인공으로서 효종량의 일화를 전한다. 이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기이편의 죽지랑과 응림(경문왕), 그리고 塔像편의 未尸郎, 孝善편의 孝宗郎의 일화를 전한다.

특히 효종량의 일화는 양서에 모두 전하면서도, 입전된 주인공은 孝女 知恩과 어머니를 봉양한 가난한 여인(貧女)이다. 양서의 효녀지은과 빈녀는 그 줄거리나 내용이 매우 흡사하여 동일 인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곧 왕경의 효녀가 어머니를 모시다가 끼니를 잇기 어려워 부자집에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아채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효종량이 이를 듣고 곡식을 내어 도우니 낭도(문객) 들 또한 곡식을 거둬 도와주었고, 왕이 이를 듣고 곡식과 집을 내리고 그

동리에 효양방이라는 이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 사서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곧 양 사서의 스토리 전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韓歧部 百姓 連權의 女丁 知恩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고 한 데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芬皇寺의 東里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한 것으로 전하고, 나이도 각각 32세와 20세 전후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모녀를 도운 주체를 『삼국사기』에는 효종랑이 그의 부모에게 아뢰어 도움을 받고 그의 낭도들이 곡식을 거뒀다고 한 데 대해, 『삼국유사』에는 효종랑과 그의 무리(徒)가 도운 것으로 기록하면서 그 무리를 門客이라 일컬었다. 아울러 효종랑의 출신을 『삼국사기』에는 당시 제3재상 서발한 仁慶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 이름이 化達인데, 이 사건으로 국왕이 현강왕의 딸과 결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당시의 국왕을 진성왕으로 명기하면서도 효종랑의 출신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종결부에 있어서도 『삼국사기』에는 이를 미담으로 여겨 당나라 황실에 이를 표문으로 올렸다고 하였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후일에 효녀가 대왕으로부터 받은 집을 기진하여 兩尊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양 사서의 적지 않은 차이로 말미암아 동 사건을 정강왕대의 일로 보거나⁶⁾ 『삼국유사』의 기사를 취하여 진성왕대의 일로 보기도 한다.⁷⁾ 그럼

-
- 6) 윤용혁, 1978, 「新羅 孝子 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 11, 53쪽. 김기섭, 2001, 「신라 흥덕왕대 孫順의 孝를 통해 본 ‘表彰’의 의미」,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교수 정년기념논총』, 韓國中世史學會, 406쪽.
- 7) 전기웅, 1989, 「신라 하대 말의 정치 사회와 경문왕가」, 『부산사학』 16, 30쪽. 권영오, 2004,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6, 58~59쪽. 2005,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 208·215쪽. 조범환, 2009,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166쪽.

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의 기사를 취신하면서도 『삼국유사』 지명 전송 등의 가치를 일정 정도 인정하고, 양서 기사의 차이를 근거한 사료의 계통이 다른 데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⁸⁾

주지하듯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각각 유교적 합리사관과 불교적 신이사관을 표방하여 편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사서에 실린 효행 관련 내용을 살펴 봄으로써, 효녀 지은 관련 일화가 양 사서에 실린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열전은 모두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편은 후대의 사서와 달리 재상이나 충신, 반역 등의 편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후대 사서의 열전에 준하는 名臣(열전 권1~3), 名將(열전 권4), 忠君(열전 권5), 名儒(열전 권6), 殉國(열전 권7), 孝行·剛直·隱逸·文藝·貞節(열전 권8), 叛逆(열전 권9~10)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孝女知恩전은 열전 권8의 「효행·강직·은일·문예·정절」에 포함된다. 열전 권 8 가운데 효행 관련 내용은, 向德, 聖覺, 孝女知恩전이다. 이들 효행전은 대체로 일정한 형식 곧 출신, 성품, 효행의 내용, 표창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성각전」 뒤에 논찬을 붙여 향덕과 성각의 효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전한 사유를 밝혀 놓았다.

이들 『삼국사기』의 효행전은 동 효행의 발생시기를 「향덕전」에서처럼 천보 14년(755)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거나, 「성각전」이나 「효녀지은전」처럼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곧 「성각전」에서는 ‘대신 각각 敬信과 이찬 周元 등이 국왕에게 아뢰었다’고 하여, 후일 원성왕이 된 김경신과 그와 왕위를 다투던 김주원이 함께 활동한 때인 혜공왕대

8) 정구복, 1987,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9, 「一然과 三國遺事」, 『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302~303쪽.

(765~780) 무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효녀지은전」에서는 ‘효종은 당시 제3재상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 국왕의 형 헌강왕의 딸을 시집보냈다’고 한 데서 헌강왕을 ‘국왕의 형’이라고 지칭한 바, 정강왕 내지 진성왕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효행전에서는 효행 자체의 사실과 국가가 이를 표창한 사실만을 기술한 데 대하여, 효녀지은전은 다른 효행전과 동일한 서식을 보이면서도 효녀 지은에 대한 효종량의 사적인 구휼을 함께 서술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 효행전에서 향덕과 성각의 효행은 지방에서 일어난 사실인데 대하여, 지은의 효행은 왕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지은의 경우에만 열전의 표제에 ‘효녀’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여성의 효행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의 표창에 있어서 웅천주 향덕의 고사가 기준이 되었음을 성각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은에 대해서도 앞선 향덕과 성각의 전례에 비추어 표창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성각전의 뒤에 향덕과 성각이 몸을 훼손하여 부모를 봉양한 것을 비판한 사론을 실었는데, 이는 김부식의 유교적 관념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은에 대한 표창은 경덕왕대의 향덕이나 혜공왕대의 성각에 비하여 매우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지은에게 租 5백 섬과 帛 한 채를 하사한 것은, 향덕에게 租 3백 섬과 帛 한 채를 내린 것에 상응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하여 표창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은에게 요역을 면제한 것은 기왕에 향덕에게 구분전을 내린 그것에 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역의 면제는 지은을 ‘韓歧部 백성 連權의 女丁’이라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에 왕경 6부민을 丁男과 丁女로 파악하여 요역을 부과하였던 사정을 반영한다. 지은의 마을에 ‘孝養坊’이란 이름을 내린 것은, 향덕의 효행을 선양하기 위하여 비석을 건립한 그것에 상응한다. 또한 지은에게 내린 곡식을 지키기 위해 국왕이 군사를 보내어 교대로 지키게

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도적이 들끓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삼국유사』 효선편에도 동일한 효녀의 일화를 전한다. 『삼국사기』의 「효녀지은」전과 달리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20세 전후의 貧女라 하면서, 芬皇寺의 東里 출신으로 흉년으로 大家의 집에 복역하여 쌀을 받아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것, 그리고 후일 貧女가 하사받은 집을 기진하여 兩尊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孝宗郎이 南山 鮑石亭에 遊하다가 門客으로부터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돕게 되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삼국사기』와 자못 다르다.

사실 『삼국사기』 열전 중의 효행전에 대응한 『삼국유사』의 편목은 「孝善」편이라 할 수 있다. ‘孝善’을 부모에 대한 효도와 佛에 대한 善行(신앙)으로 풀이하면서, 『삼국유사』의 「효선」편은 일연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⁹⁾ 이러한 견해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尙書』의 周書, 康誥조에서는 ‘親’을 주석하여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 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것을 우애라고 한다(善父母爲孝 善兄弟爲友)”¹⁰⁾고 하였다.

그런데 김부식은 「靈通寺大覺國師碑」(1125)에서 의천을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부모를 잘 모시는 데 게으르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시고는 생각을 궁구히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덕을 짓되 스스로 燒臂 공양에 이르기까지 하니(天性至孝。善父母不怠。及其亡則。窮思畢情。以營功德。至自燒臂)’라고 하여,¹¹⁾ 고려시대 ‘孝善’의 개념을 살필 수 있다. 의천이 본래 효성스러움을 타고 났고, ‘부모님을 잘 모셔서(善父母) 죽어서

9) 이기백, 1983,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동아연구』 2, 30·36쪽.

10) 『尙書注疏』 권 14, 周書, 康誥 11.

11) 金富軾 찬, 「開城 靈通寺大覺國師碑文」, 이지관 역주, 1996, 『역대고승비문』(고려편 3), 가산문고, 124~125·157쪽.

도 燒臂 공양을 할 정도로 부모님을 위한 공덕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고려시대에 효도는 살아서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공덕을 짓는 것이었고, 그것이 ‘善父母’이고 ‘孝’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으로서도 善父母가 곧 孝였던 것이다. 사실 일연이 일컬은 ‘孝善’이란 바로 김부식이 일컬은 孝가 곧 善父母이며, 이러한 善父母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라는 고려시대 효의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고려시대 효의 관념은 이미 신라시대에도 있었다. 곧 「승복사비」에서 경문왕이 당 의종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왕위 승계를 공인받고, 동왕 6년 그의 考 啓明을 懿恭大王에 추봉하면서 종묘에 부모한 것을 ‘聖帝(당나라 황제)의 恩光이 드러나고 우리 임금의 효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데서 살필 수 있다.¹²⁾ 또한 효공왕 즉위 직후 당나라가 경문왕과 헌강왕에게 각각 太師와 太傅를 추증한 데 대하여 「謝恩表」에서 『효경』의 ‘가장 큰 효도는 어버이를 높여 드리는 것[大孝尊親]’이라 하였던 것¹³⁾은, 돌아 간 이후로도 ‘善父母’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관념을 보여준다.

의천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공덕을 지었던 것은, 분명히 불교적인 ‘善父母’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문왕이 곡사를 중수하면서 華嚴大德 釋 泐言으로 하여금 화엄경을 강한 것을 ‘효성스러운 생각을 아뢰고冥福을 드리려는 바’라고 한 것이나, 원성왕을 추송하는 것에 대해 ‘조상을 하늘과 上帝와 함께 제사지내는 것이, 어찌 높으신 혼령을 常樂의 세계에 모시는 것만 하겠습니까?’¹⁴⁾ 라고 일컬은 데서 살필 수 있다. 신라

12) 최치원 찬, 「崇福寺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256~257·270쪽.

13) 최치원, 「謝恩表」, 한국고전번역원 편, 2009, 『고운집』 1, 220쪽.

14) 최치원 찬, 「崇福寺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249~250·266쪽.

하대에 이르러서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화엄경을 강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유교적인 효보다 우월한 효도라고 믿었던 것이다.

『삼국유사』 효선편의 「眞定師孝善雙美」조에서 돌아가신 진정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고 일컬은 데에서, 부모님을 常樂의 세계에 모심으로써 불교적인 ‘善父母’를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 ‘孝善雙美’라고 일컬었다고 할 수 있다.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의 경우 보시로 인하여 대성이 재상가에 다시 태어나 어머니를 봉양할 뿐더러 현생과 전생의 부모님을 위하여 불국사와 석불사를 짓고, 「孫順埋兒 興德王代」조에서는 손순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지극한 마음에 아이를 버리려다 석종이 출현하는 인연으로 표창을 받고 弘孝寺를 지은 것, 그리고 「貧女養母」조에서 빈녀가 후일에 그의 집을 기진하여 兩尊寺를 지은 것 등은, 모두 부모를 위해 공덕을 지어 부모가 天界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증대사가 乾符 6년(879)에 莊 12區와 田 500結을 희사하여 절에 예속시키면서 ‘안으로는 부모가 天界에 태어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것(內資父母生天)’이라 일컬은 것¹⁵⁾은, 부모님이 천계에서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불교적 효선이라고 믿었던 때문이다. 당시에 무구정답을 건립하거나 불상을 건립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도, 바로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아 조상을 常樂의 세계 곧 극락 세계에 모심으로써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 믿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尙德(尙得)의 효행이다. 이를 전혀 불교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것이 특이한 것으로 지적된다. 孝善을 부모에 대한 효도와 佛에 대한 善行(신앙)으로 풀이한다면, 향득조의 기사는 『삼국유사』 효선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삼국사기』 성각전의 내용이 『삼국유사』 효선편에 걸맞을 수 있을 것이다.¹⁶⁾

15) 최치원 찬,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위의 책, 189·205쪽.

16) 이기백, 1983, 앞의 논문, 35쪽.

사실 『삼국유사』의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조는 向得이 ‘舍知’라는 사실 이외에 『삼국사기』 향덕전의 내용보다 오히려 축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이 이를 굳이 효선편에 편집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경덕왕대 向德(向得)의 효행은 『삼국사기』 「성각전」에서 성각을 표창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사론에서 向德을 지칭하여 ‘부모가 아프면 약이 되는 음식을 익혀 효도하는 것이지, 몸을 훼손하여 효도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이지만, 좁고 누추한 고을에서 학술과 예의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을 희생하여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음은 정성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또한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교적 관점의 사론임에 분명하지만, 일연은 오히려 몸을 상하더라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효선편에 할애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남북조 시대 북위의 慧覺이 한역한 『賢愚經』에는, 먼 과거 아승기겁에 提婆拔提의 왕 尸毘가 菩薩道를 행하여 일체 중생을 가없이 여겼다는 세존의 전생담을 전한다. 이에 따르면, 제석천이 그를 시험하고자, 비수 갈마가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이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하였고, 비둘기는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하였다. 이에 대왕이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는데, 시비왕은 지금의 부처로서 결국 열반(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鹿野苑으로 가서 법륜을 굴림으로써 3寶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다리 살을 베어 중생을 구제하는 전승은 불교에서는 보살도

17) 『賢愚經』 권 1, 梵天請法六事品.

의 실행이었고, 사실 신라 사회에도 이러한 전승은 불교에서 존송되었다. 元和 5년(810) 경인년 6월 3일자 의 『仁陽寺碑(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에는 ‘三寶에 귀의하고, 四恩에 보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새를 불쌍히 여겨 다리 살을 베어주기도 하는 것(怜鳩割股)’을 들고, 이를 ‘菩提(깨달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였다.¹⁸⁾

따라서 다리 살을 베어(割股)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의 전생담에서 유래한 ‘菩提(깨달음)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하물며 향득이 다리살을 베어(割股) 부모님의 병을 고치고 공양하는 것은 보살도의 실행이자 불교적인 효행으로서 지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연이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의 조항을 굳이 『삼국유사』 효선편에 편찬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며,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을 비판한 김부식의 사론에 대한 반론으로 본 효선편에 이를 하나의 조항으로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삼국사기』의 효녀지은조의 일화는 유교적 관념의 분식이 있고, 매우 정제화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곧 『삼국사기』에만 전하는 효종량의 가계, 그리고 현강왕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이야기는, 효녀 지은의 구체적인 출신이나 이름까지를 포함하여 매우 정제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200여 명에 이르는 삼대 화랑의 전기에 전하는 ‘羨事’¹⁹⁾ 가운데 하나로서 당 황실에 올린 표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삼국유사』의 일화는 빈녀에 촛점을 맞춘 전승으로서, 그녀가 마침내는 집을 회사하여 양존사를 건립하였다는 데서 빈녀의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날의 효행과 함께 전승되어 정리됨으로써, 그녀의 나이나 출신 등은 몰각되고 몇 가지 불분명하게 전승된 사실들이 덧붙여져 기술된 것이라 여겨진다.

18) 『仁陽寺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238~240쪽.

19) 『三國史記』 권 47, 列傳 7, 金歆運傳 史論.

II. 효종랑과 진성왕 이후의 정치과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전하는 효녀지은의 설화는 효행을 강조하고, 사적 기부 행위를 미덕으로 칭송하던 하대 신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송복사비』에서 경문왕이 원성왕을 추송하는 것을 효행으로서 강조한 것이라든지, 경문왕을 추송한 것, 그리고 경문왕·현강왕의 추증을 지속적으로 당나라에 요청하고 ‘부모님의 공훈을 드러내는 것을 大孝’로서 지칭한 것 등은, 당시 경문왕가 왕실의 효에 대한 관념과 함께 조상을 추송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한 『삼국사기』 「효녀지은」전에서 다른 효행전과 달리 국가가 아닌 화랑이 효행을 보고 돕는 행위를 미덕으로 여겼다. 이는, 국가가 이들 빈민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덕이나 성각과 같이 정식 보고절차를 거쳤던 것과는 달리, 귀족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조장하였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특히 『삼국사기』에서 ‘국왕의 형 현강왕’을 일컫고, 『삼국유사』에서는 ‘適歲荒’이라 하면서 ‘진성왕’을 지칭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효녀 지은의 일화가 발생한 시기는 진성왕 3년 이후의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곧 효녀 지은의 경우 왕경 출신이었던 만큼, 당시의 흉년은 정강왕 때의 서해안에 한정된 한해와 구분되며, 전국적인 한해와 흉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진성왕 3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에서는, 효종랑 무리를 ‘門客’이라 하였다. 이는 ‘낭도’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문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이 헌덕왕 14년(822) 김현창의 난이 일어나자 명기와 안락 두 화랑이 종군을 청하여 독자적 군사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화랑의 낭도들이 이미 사병집단으로 변질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²⁰⁾ 또한 하

대의 귀족들이 사적 질서를 강화하면서 문객을 초치하여 사병화한 것으로 보고, 낭도들이 후일 화랑이 출사한 이후에 문객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삼국유사』 빈녀양녀조의 문객은 그러한 사실의 반영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²¹⁾

근래에는 하대의 화랑은 明基, 安樂과 같은 군사적 활동, 응림이 낭도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고, 요원랑 등이 경문왕의 세력 기반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효종이 왕경내 빈민의 구휼활동을 통하여 왕위계승을 노리는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는 등,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²⁾ 더 나아가, 진성왕대에 효종은 화랑으로서 집안의 사병을 지휘하였고 그의 아버지 인경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현강왕의 사위가 되고, 출사하여 시중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또 진성왕과 효공왕대에 세력을 떨치던 효종의 화랑세력과 이를 견제하는 박경휘 세력 간에 왕위 쟁탈전을 벌여, 효종의 화랑세력이 패함으로써 박씨 왕가가 탄생하였고, 그후 효종을 추종하던 화랑도 출신 세력과 견훤이 비밀리에 공모하여 경애왕을 살해함으로써 효종의 아들인 김부가 왕위에 올랐다는 견해까지 제기되었다.²³⁾

사실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의 효종랑의 ‘門客’이나 같은 책, 권3, 栢栗寺조의 夫禮郎의 ‘門客’은, 일연이 신라의 화랑을 고려시대의 국선을 빌어와 일컬었듯이,²⁴⁾ 신라의 낭도를 고려시대의 명칭인 문객으로 일컬은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최치원은 이미 당 체류시절에 고변의 문객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고변의 휘하에는 料錢을 지급받는 문·무 계열의 문객이 3천 명이었다고 한다.²⁵⁾ 또한 고려시대의 문객은 家奴나 家僮, 시

20) 이기백, 1957, 앞의 논문; 1974, 앞의 책, 259~260쪽.

21) 盧泰敦, 1978, 「羅代의 門客」, 『한국사연구』 21·22, 1~32쪽.

22) 全基雄, 1994, 앞의 논문, 122~123쪽.

23) 조범환, 1999, 앞의 논문, 33~35·40~46쪽.

24) 박남수, 2009, 앞의 논문; 2013, 앞의 책, 474-475쪽.

종과는 구분되었고,²⁶⁾ 문관과 무관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관직에 진출한 자도 있었고,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도 있었지만, 모두 출세를 위하여 세력가의 집에 급료를 받고 봉사하였다. 최충헌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반계열의 문객이 모두 가병은 아니지만 관군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미 사병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이의 문객들 가운데 당대에 이름난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3番으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書房에서 숙직하는 등,²⁷⁾ 고려 무신정권의 정치 군사적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신라의 화랑도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집단으로 이들을 사병화하였다거나, 또는 고려시대 문객과 같이 출세를 위하여 화랑의 휘하에 모여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효종랑의 미담에서 보듯이 화랑도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화랑의 가문 또는 그의 부친이 부담하였다고 본다. 화랑과 낭도간의 사적인 인간 관계나 주종 관계 등으로써 고려시대 문객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본래 주종관계보다는 사다함과 무관랑의 사례에서 보듯이 死友로서 맺어진 朋友였다. 그러한 친구간의 신의는 고려시대 문객의 주종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낭도들은 균역과 요역, 조세 부담을 지는 존재였던 만큼, 화랑과 낭도의 관계는 국가의 공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사적 집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고려시대처럼 세력가의 비호 아래 사병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김헌창의 난에 참여하였던 화랑 명기와 안락도 종군을 청하여 허락받은 다음에야 참전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의 난을 진압할 무렵까지 화랑도의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병화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효종랑이 남산 포

25) 『계원필경집』 권 17, 「初投獻太尉啓」· 권 18, 「謝探請料錢狀」.

26) 『고려사』 권 128, 列傳 41, 叛逆, 鄭仲夫·崔忠獻.

27) 『고려사』 권 129, 列傳 42, 叛逆, 崔忠獻·崔怡.

석정에 유오하였을 때에 ‘문객이 별처럼 달려 왔다(門客星馳)’고 한 것은 낭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서 사병이나 고려시대 문객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될 소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진성왕 3년(889)부터 진성왕 9년(895)까지 7년간 나라가 기울어질 듯한 재앙이 절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乾寧 1~2년(894~895) 무렵에 해인사에서 난리가 일어나 나라와 삼보를 지키고자 싸우다 돌아간 승려와 속인이 많았다. 이에 대한 사정은 僧訓의 『五臺山 吉祥塔詞』와 그 음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진성왕 9년(895) 사문 僧訓이 찬술한 것이다. 승훈은 해인사에 있었던 난리의 원인을, 그 陰記에서 ‘제자들이 불도를 닦지 않고 仙을 닦음으로써 마구니를 면할 수 없었다’고 평하였다.²⁸⁾ 여기에서 지칭한 제자들은 승속을 망라하는 불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脩仙’이란 의미가 주목된다.

이 무렵에 ‘仙’은, 부처를 뜻하는 金仙과 忍辱仙人, 그리고 노자를 뜻하는 鹿仙, 초보 유생을 뜻하는 頑仙, 신라 예부를 지칭한 建禮仙門, 科擧榜目을 지칭한 仙科 등이 있는 한편으로, 화랑을 뜻하는 ‘新羅僊人永郎, 鍊丹石臼’의 僊人과 仙郎이 있고, 화랑의 역사를 다룬 『仙史』, 『仙記』, 『仙籍』 등이 있었다. 본 「僧軍을 뜻함」에 보이는 ‘仙’은 불교에 대응한 개념임에 분명하다. 본 塔詞에서는, 당대에 도가적 풍조가 유행하였고, 제자들이 仙을 닦음으로써 승속들이 隱逸에 빠져 실행이 없었음을 비판한 것이라 여겨진다.

곧 승훈은 본 塔詞에서 ‘신선의 골짜기를 진정하고자.(永鎮仙籟)’ 탐을 세웠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에 해인사 골짜기가 신선의 골짜기로 일컬어졌음을 의미한다. 사실 최치원은 그의 만년에 해인사에 들어가 온

28) “...吾師向覺天耶出, 弟子脩仙 豈免魔...”(『五臺山寺吉祥塔詞』,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소 편, 앞의 책, 340쪽)

거하며 승려와 교유하여 생을 마쳤고²⁹⁾, 그후 고려 전기에도 高士 李能逢, 吳世才, 安淳之 등이 그곳에 기거하였다.³⁰⁾ 승훈의 글에 보이는 仙籟이란 해인사의 은일의 장소를 지칭하지만, 은일하는 것만으로는 진성왕대 신라의 어려움 곧 지속적인 기근과 도적들의 발호, 불법을 말살하려는 무리들의 발호 등을 막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효공왕 1년(898)에는 ‘지금은 불법이 장차 쇠하려 하면서 魔軍이 다투어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잡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신명의 보호를 힘써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³¹⁾ 이에 護國義營都將 重關燾 異才 등과 같은 뜻있는 인사들이 불법에 의지하여 天祐 5년(908, 효공왕 12) 무진년 겨울 10월에는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고 兵亂의 틈을 없애기 위하여’ 수창군의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우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효공왕 15년(911) 大臣 殷影이 왕의 친첩을 살해하고, 그 이듬해에 효공왕이 흥거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난의 시기에 도 화랑도의 활동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중고기에 화랑들이 하였던 역할을 승속들이 護國과 護法을 기치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 지방의 異才와 같은 이가 부처의 가피로 한 지역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이는 국가의 군사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고기처럼 낭당에 이들 화랑도 출신을 소모병으로 불러³³⁾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효공왕이 즉위하여 중국에 보낸 「謝嗣位表」에서 ‘도적을 토벌하는 일은 대부분 어그러지기 일쑤여서 무딘 칼을 갈면서 노력해 보지만 난국을 타개하지 못한’ 것이나 ‘바다에 배 한 척도

29) 『삼국사기』 권 46, 열전 6, 崔致遠.

30) 『補閑集』 권 상, 成宗 15년 8월.

31) 최치원, 「新羅伽伽山海印寺結界場記」, 한국고전번역원 편, 앞의 책, 285~287쪽.

32) 최치원,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한국고전번역원 편, 위의 책, 302쪽.

33) 박남수, 2008, 「신라 중고기 화랑의 출신가계와 화랑도 운영의 변화」, 『한국고대사 연구』 51; 2013, 앞의 책, 414~418쪽.

떡을 수 없게 되고 육지에 수레 한 대도 보낼 수 없게' 된 것은,³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효공왕이 흥거하고 박씨왕인 신덕왕이 즉위한 데 대하여, 신덕왕의 세력과 효종의 화랑도 세력이 대립하여, 효종이 패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또한 박씨왕의 등장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거나 기록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박씨왕의 등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로는, 신덕왕의 자매가 효공왕의 왕비가 되면서 김씨에서 박씨로 개성하였다는 견해가 있다.³⁵⁾ 또한 신라 왕실은 김씨 외에 왕위 승계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신라 박씨들의 신분은 진골 귀족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고려 건국기의 『구삼국사』 편찬자들이 고려 건국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박씨 왕계를 만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⁶⁾

이에 대해 박씨왕의 등장을 인정하면서, 이를 왕통의 변동보다는 골품제 국가의 실질적인 종말로 보기도 한다.³⁷⁾ 또한 효공왕의 흥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면서, 효종이 화랑출신으로서 시중에 오른 만큼 왕위 계승자로서 유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朴景暉를 지지하던 귀족세력의 추대로 신덕왕이 즉위하면서 제8대 아달라왕과 연결시켜 왕통의 정통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⁸⁾

필자로서는 과연 이 무렵에 화랑출신이 기왕의 화랑도를 정치세력화

34) 최치원, 「謝嗣位表」, 한국고전번역원 편, 앞의 책, 212쪽.

35) 井上秀雄, 1968, 「新羅朴氏王系の成立-骨品制の再檢討-」, 『朝鮮學報』 47: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321~374쪽.

36) 권덕영, 2008, 「신라 하대 朴氏勢力的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 49: 2015, 『한국의 역사만들기-그 허상과 실상-』, 새문사, 76~77쪽.

37) 이기동, 1985,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46쪽.

38) 曹凡煥, 1991,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역사학보』 129, 4~6·10쪽.

하여 신덕왕의 즉위 과정에 참여하였을까 하는 데에 회의적이다. 이에 ‘박씨왕계’의 등장 배경과 그 실체를 검토함으로써, 신덕왕이 화랑도 세력이 아닌 당대 정권의 핵심에 있던 진골귀족 김씨 세력과 연대하여 즉위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신라 박씨 왕계’의 실체 뿐만 아니라 신덕왕 이후 신라 멸망기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고 본다.

효공왕이 흥거할 당시에 신라 執事省侍郎 瑞書院學士였던 최언위³⁹⁾는 그가 찬술한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946)에서 신덕왕의 즉위를 ‘鯨鯢의 難’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의 해에 난리가 劉曹의 시대[중국 삼국시대]보다 심하여, 위로 聖主가 없음은 고슴도치들을 풀어놓은 것 같았으며, 아래로는 용렬한 무리들만 모여 있어 鯨鯢의 難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결락) 四海가 물 끓듯 하며, 三韓은 소요하였다.⁴⁰⁾

‘鯨鯢’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小國을 탐식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⁴¹⁾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였을 최언위에게는 효공왕의 죽음과 신덕왕의 즉위를 악인들에 의한 일종 쿠데타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위로는 聖王이 없고, 그 신하들은 용렬한 무리들이어서, 난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효공왕은 즉위한 이듬해(898)에, 정강왕 1년(886) 이찬으로 시중에 임명되었던 서불감 俊興을 상대등에 임명하고, 아

39) 『고려사』 권 92, 列傳 5, 諸臣, 崔彥攝.

40) “☐☐之年亂甚於劉曹之代 上無聖主 猶鋪狹聚之徒 下有庸流 莫防鯨鯢之難 物☐☐☐☐如☐如☐ 四海沸騰 三韓騷擾”(최언위,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조선총독부 편, 1919, 『조선금석총람』 상, 172쪽)

41) “古者 明王伐不敬 取其鯨鯢而封之 以爲大戮於是乎 有京觀以懲淫慝 鯨鯢大魚名以喻不義之人吞食小國”(『春秋左傳 注疏』 권 23, 宣公 12년)

찬 繼康을 시중에 임명하였다. 동왕 6년(902)에는 대아찬 孝宗을 시중에 임명하였다. 또한 효공왕 10년(906)에 파진찬 金成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그밖에 관직의 임면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삼국사기』의 기사를 그대로 따른다면, 효공왕이 흥거할 당시에는 상대등은 김성이었고, 효종이 시중이었던 셈이다.

사실 효공왕 2년에 상대등이 된 俊興은 정강왕 1년(886) 시중에 임명되어, 정강왕의 유조에 따라 진성왕을 옹립하였다. 그 이후 상대등과 시중의 임면 기사가 보이지 않아, 俊興은 시중에 임명된 이후 상대등에 승차할 때까지 그 직을 고수하지 않았을까 한다. 마찬가지로 효종 또한 효공왕의 매형으로서 시중직을 계속 맡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효공왕 15년(911) 대신 殷影이 왕의 嬖妾을 멀리하도록 간하였으니 듣지 않자 嬖妾을 죽인 사건은, 최언위가 국왕의 실정을 聖主가 없다 하고, 대신들의 국정 운영이 고슴도치들을 풀어놓은 것처럼 진골 귀족들간에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사정을 보여준다. 신덕왕의 쿠데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신덕왕은 즉위하고 나서, 효공왕 2년부터 효공왕 6년까지 시중직을 맡았던 繼康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직의 임명기사는 보이지 않는 바, 효종을 시중직에 그대로 유임시키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당시 신덕왕(경휘)의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은, 효공왕의 嬖妾을 살해한 殷影을 비롯하여, 繼康과 孝宗, 그리고 景明王, 경명왕이 즉위하여 상대등이 된 왕제 魏膺과 시중이 된 裕廉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력은 景暉(신덕왕)와 그의 두 아들 昇英과 魏膺, 그리고 繼康과 孝宗, 裕廉, 殷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덕왕 부자는 현강왕 때 시중을 역임한 예겸의 아들과 손자인 셈이고, 裕廉은 효종의 아들 김부의 堂弟로서 경순왕 때에 相國의 자격으로

왕건과 회담하기도 하였거니와, 효종과 유림은 숙질간이 된다. 유림은 효종의 뒤를 이어 시증직에 오른 셈이다. 繼康과 孝宗은 효공왕 때에 선후로 시증을 역임한 만큼 경문왕가와 밀접한 왕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효종은 문성왕의 후손인 만큼, 孝宗과 裕廉은 이미 왕위 계승의 범주내에서 벗어난 문성왕계의 김씨 세력이라 할 수 있고, 이들 문성왕계 진골 귀족들이 박씨인 景暉(신덕왕)를 옹위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아니할 수 없다. 아무튼 경문왕계의 왕통이 원성왕의 동일 예영계 내에서 균정계의 현안왕과 현정계의 제휴에 의해 성립되었다면,⁴²⁾ 신덕왕의 즉위는 동일 예영계 내에서 이미 왕위 서열에서 밀려난 균정계의 문성왕 계열이 예검의 아들인 신덕왕을 옹위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예검은 과연 박씨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신덕왕의 선계는 『삼국유사』 왕력과 『삼국사기』 본기에서 모두 박씨라고 하였다. 다만 『삼국사기』에서는 경휘(신덕왕)를 제8대 아달라왕의 遠孫이라 한 데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모계를 밝히고 외조부 元从角干을 何達王의 遠孫이라 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신덕왕의 선계 관련 기록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는 이름의 경우 표기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곧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신덕왕의 이름과 母, 妃의 이름에 있어서 각각, 景徽·眞花夫人·資成王后(懿成, 孝資)와 景暉·貞和夫人(貞和太后)·金氏 憲康大王之女(義成王后)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景徽와 景暉, 眞花와 貞和, 그리고 懿成과 義成이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져, 동일 인물에 대한 이표기라 해도 좋을 듯하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경휘(신덕왕)의 본명을 秀宗이라 하고, 모계와

42) 박남수, 2012,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55~62쪽.

부계를 밝혔는데, 『삼국사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父兼(銳謙)을 『삼국사기』에서는 경휘(신덕왕)의 부친이라 한 데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義父라 하고, 별도의 친부의 가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의부 父兼(銳謙) 뿐만 아니라, 친부와 외조부의 추증호를 모두 밝히고 있어, 『삼국사기』에 비하여 매우 자세한 가계도를 보여준다. 이들 양 사서의 신덕왕 선계는 다음 표와 같이 종합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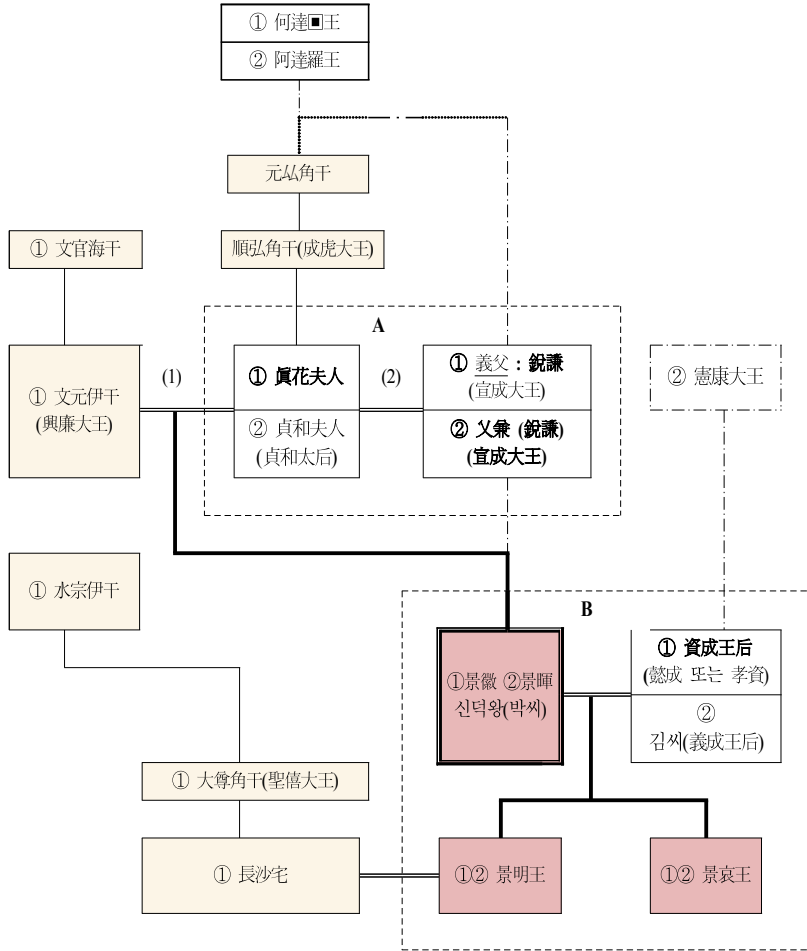
다음 표에서 A와 B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계보가 서로 겹치는 부분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의 부분은 두 사서가 각각의 특징을 지니지만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다만 『삼국사기』의 ‘아달라왕-예겸-신덕왕’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삼국유사』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곧 『삼국유사』에서는 아달라왕으로부터 신덕왕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모계로 인한 것이다.⁴³⁾ 일연이 신덕왕의 계보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우 다른 계보를 남긴 것은, 일연의 자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전승에 충실하였던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일연이 예겸을 신덕왕의 ‘義父’라고 지칭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신라에 있어서 의부는 예겸의 경우가 유일하지만, 당나라에 있어서는 貞元(785~805) 말엽의 宦官이었던 俱文珍이 후에 義父의 姓을 따라 劉貞亮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관직에 나아가 누차에 걸쳐 右衛大將軍과 知內侍省事에까지 오른 사례가 있다.⁴⁴⁾ 또한 宦官 田令孜는 본성이 陳씨로서 咸通中(860~873)에 義父를 따라 內侍省에 들어가 환관이 되었는데, 후일 義父의 연고로 옛날처럼 군사를 감독하였다고 한다.⁴⁵⁾

43) 『삼국유사』 왕력의 신문왕 가계는 신덕왕을 박씨라 하면서도, 그의 모계가 아달라왕[何達王]의 원손(母眞花夫人, 夫人之父順弘角干, 追諡成虎大王. 祖元[何]角干乃何達王之遠孫)이라 밝혔을 뿐, 그의 親父나 義父의 성씨를 밝히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둔다.

44) 『舊唐書』 권 184, 列傳 134, 宦官, 俱文珍.

45) 『舊唐書』 권 184, 列傳 134, 宦官, 田令孜.



『삼국유사』(①)·『삼국사기』(②) 하대 신덕왕 세계도

[* = (1) 초혼 (2) 재혼 ** = 『유사』계보 *** = 『사기』계보 **** = 계보 줄임]

이처럼 8~9세기 무렵 당나라에서는 의부의 성을 따라 성을 고치기도 하고, 의부의 연고로 중요 직책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사실 『삼국유사』 왕력에는 신덕왕의 ‘이름은 景徽인데 본명은 秀宗(名景徽 本名秀宗)’이라 하였거니와, 굳이 본명을 기술했던 것은 劉貞亮(俱文珍)의 사례와 같이 義父의 성을 따르면서 이름을 고친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미 지적되듯이 의부 예겸은 헌강왕 때에 시중을 역임한 진골 귀족 김씨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신덕왕은 본래 朴秀宗이었는데, 先父가 돌아가고 어머니 眞花(眞和)夫人이 예겸에게 개가함으로써, 그 때에 의부의 성을 따라 金景徽로 이름을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 진골 김씨가 당시 정치사회를 좌우하는 사회였던 만큼, 朴秀宗보다는 의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정치 사회적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구오대사』(권30), 『신오대사』(권74), 『오대회요』(권30) 신라전과 『책부원귀』 권 972, 외신부 조공 5에서, 신덕왕의 태자 경명왕을 ‘金朴英’이라고 일컬은 것은, 이들 소위 ‘박씨왕계’가 金氏姓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의 반영이 아닐까 한다. 신덕왕이 헌강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당시 혼인의 풍속 곧 ‘族名은 제1골과 제2골로써 스스로 구별하고, 兄弟의 딸, 고모, 이모, 從姊妹와 모두 맞이하여 처를 삼는데, 왕족을 제1골로 삼고, 처 또한 그 족(제1골)이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제1골인 왕족 예겸의 혈통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신덕왕은 본래 박씨 성이지만, 전 시중 예겸의 의붓 아들 김씨로서 헌강왕의 딸과 결혼하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효공왕의 장인인 예겸을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 하여 효공왕 때에 세력을 구가하다가, 문성왕계의 김씨 귀족들과 힘을 합하여 쿠데타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된다.

46) 末松保和, 1954, 「新羅三代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3쪽. 김창겸, 2003,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신라문화』 22, 224쪽; 2003, 『신라하대 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 77쪽. 권덕영, 2008, 앞의 논문; 2015, 앞의 책, 6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신덕왕의 성씨를 ‘朴氏’라고 하였다. 이는 『구당서』에 보듯이, 의부의 성을 따라 성씨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史官이 본래의 성씨를 밝히고 있는 데서 찾아야 할 듯하다. 다만 김부식은 신덕왕을 아달라왕의 원손이라 하면서, 예겸을 신덕왕의 아버지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김부식으로는 신덕왕이 박씨라는 사실, 그리고 예겸과 신덕왕이 부자간이라는 사실만을 밝힌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 방식이 오늘날 연구자로 하여금 소위 ‘박씨왕계’가 등장한 것으로 오해하게 한 배경이 아닐까 여겨진다. 유교 사관을 표방하는 김부식으로는, 의부의 성을 따라 개성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사실 김부식의 시대에 있어서 의부에 대한 관념에서 의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고려 중기 묘지명인 「李勝章墓誌銘」(1193)에는, 李勝章의 어머니가衣食 때문에 개가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전남편의 舊業을 따라 아들을 공부시킴으로써, 李勝章이 전 남편의 집안을 빛내고 결국 監察御史까지 승차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⁷⁾ 이 묘지명의 사례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1145년, 인종 23)한 지 50여 년 뒤의 기록이지만, 당시 고려 사람들이 개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전 남편의 구업을 잇게 하고 성씨를 바꾸지 않았던 성향을 살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때문에 김부식은 굳이 예겸의 성씨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신덕왕의 본래 성씨만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역사가들에 의해 신덕왕을 본래의 성씨인 박씨왕으로 오도하게 함으로써 ‘박씨왕의 시대’로 일컬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소위 박씨왕의 시대인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대에 신라 중앙정치무대에서 효종을 비롯하여 유림, 김부에 이르기까지 문성왕계의 김씨들이 활동하였던 것은, 예겸과의 밀착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물론

47) 「李勝章墓誌銘」, 金龍善 편, 1993, 『高麗墓誌銘集成』, 274~275쪽.

그러한 과정에서 진골 김씨 예겸의 의붓 자식인 신덕왕과 그의 아들에 대한 진골 김씨들의 반발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신덕왕이 재위 6년만에 흉거한 데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太白犯月)’는 星變의 기사를 전한다. ‘太白犯月’의 성변은 대체로 ‘將相相攻’⁴⁸⁾이나 ‘天下有兵’⁴⁹⁾ ‘主殺大臣’⁵⁰⁾ 등의 징조를 보여 준다. 『삼국사기』에도 이와 같은 성변이 있고나서 대체로 국왕이 흉거하고는 하였다. 해공왕과 흥덕왕, 신덕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해공왕의 경우 이 성변 이후 金志貞의 난이 일고, 다시 김양상과 김경신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해공왕을 살해하는 변고가 있었다. 신덕왕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덕왕의 죽음의 배경으로 이와 같은 군사적 대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사실 신덕왕이 죽고나서, 경명왕이 즉위한 6개월 만에 일길찬 玄昇이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거나, 신덕왕과 그의 아들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시비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건훤이 경애왕을 자진케 하면서 그 족제를 세우는데도 이들 신덕왕가의 본성인 박씨를 문제로 삼았을 것이고, 왕위 계승은 ‘내부에서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김부가 예영계 내에서 문성왕의 원예로서 자연스럽게 왕위 승계의 대상자로 떠오르게 되었을 것이다.⁵¹⁾

신라는 진성왕 7년(893) 무렵에 이미 잇따른 가뭄과 기근, 도적들의

48) 『魏書』 권 105-4, 天象志 1-4 제4, 神龜 2년 8월 기해.

49) 『宋書』 권 24, 志 14, 天文 2, 晉 惠帝 太安 2년 11월 경진.

50) 『隋書』 권 40, 列傳 5, 元諧.

51) 김부대왕은 문성왕의 예손으로서, 경명왕, 경애왕과는 상당히 가까운 모계친족이었던 관계로 즉위한 것으로 보거나(장동익, 1982, 「金傳의 冊尙父語에 대한 再檢討」, 『역사교육논집』 3, 59쪽), 건훤은 바로 신라 왕실 내의 분열과 박씨 왕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경애왕을 제거하고 김씨왕을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순왕을 옹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호철, 2000, 「후백제 건훤왕의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 백제 연구소 편, 『후백제와 건훤』, 서경문화사, 21쪽)

황행으로 왕경은 섬과 같이 되었다.⁵²⁾ 효공왕 1년(897) 무렵에는 군읍 곳
곳이 도적의 소굴과 전장으로 변하여 재정은 파탄나고 모든 도로나 뱃길
이 끊기고, 도적을 토벌하는 일이 대부분 어그러진 상태였다.⁵³⁾

당시에는 신라 군대의 조직이 무너지고, 지방의 치안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나 성주들에 의존할 뿐이었다. 또한 해인사의 경우처럼 사찰 또
한 초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체 방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명
왕 때에는 후삼국의 쟁쟁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고, 경명왕 2년(918)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阿茲盖, 閔雄·元逢과 順式, 洪述, 城達, 良文 등
각지의 호족들이 연이어 태조에게 귀부하였다. 신라로서도 경명왕 4년
(920) 정월 고려 태조와 강화를 맺어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4월에 견훤이 대야성을 공격하자, 경명왕은 고려에 원군을 청하였다.

이후 고려와의 강화는 신라 멸망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경순왕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견훤이 신라 왕경을 급습한 것은 이러한 신라의
친고려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경애왕 3년(926년) 견훤이 고려에 인질로
보낸 그의 조카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고려와 후백제간의 일대 회전
을 위한 선결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신라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신라의 군사 행동이나 도적
을 토벌하는 등의 행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신라 귀족들의 군사
행동이나 중고기면 으레 등장하였음직한 화랑도의 무훈담도 보이지 않
는다. 오히려 「五臺山 吉祥塔詞와 序」에서 보듯이 仙을 닦는데 경도된
신라 지식인들이 산야로 은일하고, 승려들 또한 조용한 곳만을 찾는 상
황이었다. 일시적으로 신덕왕의 쿠데타로 인한 신라에서의 병력 운용의

52) “景福二年三月應(下缺) … 英雄鼎 五郡邑盤和 尙難保雲泉 便遵塵路 幾經虎窟 獲托
雞林 旋屬三歲食貧 四郊多壘 肯謀駐足海之居…”(「開豐瑞雲寺了悟和尚眞原塔碑」,
이지관 역주,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 65쪽)

53) 최치원, 「謝嗣位表」, 한국고전번역원 편, 앞의 책, 207~212쪽.

기미를 살필 수 있으나, 고려 무신정권기의 문객들을 사병화하는 것과 같은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신라는 이미 국가로서의 면모를 잃었고, 성왕이 출현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최연위가 언급한대로 신라 정치사회에 성왕은 존재하지 않았고, 고려 왕건이 전륜성왕적 면모⁵⁴⁾로서 민심을 얻어 후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Ⅲ. 하대 유·불·선의 사조 및 인재 양성과 화랑도의 성격변화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조 화랑도 설치기사에서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다음에 발탁해 쓰고자 하여’라고 하면서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당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재발굴이,⁵⁵⁾ 화랑도를 설치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은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김대문이 『화랑세기』에서 ‘어질게 보좌하는 충臣이 이로부터 빼어났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타났다’고 하여, 그 목적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 하대의 화랑은 경문왕 14년(874) 당에서 신라에 파견된

54)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에서 법경대사가 태조에게 “보살임금의 큰 서원은 大乘心을 發하며, 護法을 마음에 새기고 慈悲를 널리 베푸는 것을 의무로 하리니…”라고 한 것이나, 「開豐瑞雲寺了悟和尚眞原塔碑」(937) 後記에 태조의 치적을 ‘철설을 제거하고, 마군을 항복 받음에 있어 부처님의 위력을 감득하였다’고 칭송한 것, 그리고 「智谷寺眞觀禪師碑」에서 광종을 ‘光宗 大成王이 金輪의 位에 올라’라고 일컬은 데서, 신라 말 고려 초의 전륜성왕의 이념이 폭넓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55) 李基東, 1978,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歷史學報』 82 ; 1984, 앞의 책, 332쪽.

사절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승狐澄이 『新羅國記』에서⁵⁶⁾ “귀족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이를 분 바르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이라고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겼다”⁵⁷⁾고 한 바 있다. 「崇福寺碑」(896)에는 경문왕이 玉鹿과 玄風 곧 국학과 화랑의 기풍을 드날렸다고⁵⁸⁾ 하였다. 경문왕대에는 국학과 화랑의 기풍이 병존하였고, 경문왕이 이에 대하여 각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狐澄이 일컬은 화랑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을 전한 것이라 여겨진다.

최치원은 「鳳巖寺 智證大師塔碑」(893년 무렵)에서 경문왕이 ‘心融鼎教(마음이 儒佛仙의 三教를 융합하여[동일한 진리로 본다])’⁵⁹⁾라고 함으로써, ‘마음이 三教를 융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鸞郎碑序」에서는 ‘풍류는 3교를 포함하여, 유교의 효와 충, 도교의 無爲之事에 처하여 不言之教를 행하는 것, 불교의 諸惡을 짓지 말고 諸善을 받들어 행하는 것으로써, 못 중생에 접하여 교화한다’고 하였다. 사실 최치원이 지칭한 ‘삼교’란 유교·불교·도교를 지칭한다. 또한 ‘풍류’라는 것은 화랑도를 가리키며, 삼교를 포함하여 못 중생(群生)을 접하여 교화한다(接化)고 보았다.⁶⁰⁾

일찍이 성호 이익(1681~1763)은, 「鸞郎碑序」에 대하여, 최치원이 북학을 하여 안목이 뛰어났는데도 비실한 화랑인 난랑을 높이고, 유학을 해치는 이단인 노자와 불교를 숭봉한 사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⁶¹⁾ 아울러 화랑들이 분바르고 치장한 것을 학업에 방술이 없었던 것으로, 화랑들이 산수를 浮遊하면서도 예악을 가르치지 않고, 신라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

56) 今西龍, 1970, 「新羅骨品考」,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8쪽

57) 『삼국사기』 권 4, 新羅本紀 4, 眞興王 37년.

58) 崔致遠 撰, 「崇福寺碑」, 朝鮮總督府 편, 앞의 책, 121~122쪽.

59) 崔致遠 撰,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 李智冠 역주, 1993, 『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文庫, 315쪽.

60) 朴南수, 2009, 앞의 논문; 2013, 앞의 책, 461~464쪽.

61) 『성호사설』 권 18, 經史門, 崔文昌.

가고 있었는데도 최치원이 충효가 화랑에 있었다고 한 것은, 조선시대에 현능하건 어리석건 간에 모두 詞場에 내몰아 과거에 몰두하게 한 것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였다.⁶²⁾

현대 우리 학계에서는 최치원의 삼교 융합에 대한 관심은 신라 말 순수한 儒敎의인 정치이념을 떠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던 일종의 좌절감의 소산으로 보거나,⁶³⁾ 심리적 위기를 맞은 최치원이 유교·불교·도교를 일체적으로 수용하려던 이상을 화랑도에 가탁하여 표현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⁶⁴⁾

그런데 최치원의 유불선에 대한 관념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최치원은, 헌강왕이 옛날의 것만을 숭상하는 신라의 弊風을 중국의 풍속으로 써 일소하여, 넓은 지혜로써 마른 세상을 적시게 하였다⁶⁵⁾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헌강왕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나라에서 佛書를 중히 여기고 집에서는 僧史를 간직하며, 法礪이 서로 바라보고 선비가 가장 많게 되었다.’ 하면서, ‘無去無來’나 ‘不生不滅’의 말만이 많을 뿐 『春秋』에서와 같은 신의가 없었고, 간혹 周公의 舊章만을 쓴 것과 같을 뿐⁶⁶⁾이라고 비판하였다. 헌강왕의 유교 진작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사후에 다시 불교가 융성하였다고 하지만 불교계의 말만 무성하였던 현실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雙溪寺 眞鑑禪師塔碑」(887, 진성왕 1)와 「聖住寺 朗慧和尚塔碑」(890, 진성왕 4)에서는 유·불의 드러낸 이치는 다르지만

62) 『성호전집』 권 7, 海東樂府, 花郎歌.

63) 李基白, 1970,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 『대동문화연구』 6·7;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235~236쪽.

64) 李基東, 1978, 앞의 논문; 1984, 앞의 책, 349~350쪽; 1994, 「新羅 花郎徒 연구의 現段階」,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1997, 앞의 책, 243~245쪽.

65) 최치원,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이지관 역주, 1993, 앞의 책, 289·324쪽.

66) 최치원,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음기, 이지관 역주, 위의 책. 292·335쪽.

돌아가는 바가 하나라고 보았다. 특히 「진감선사비」에서는 헌강왕이 ‘유교의 三畏[天命·大人·聖人]를 불교의 三歸依[佛·法·僧]에, 유교의 五常을 불교의 五戒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유교의 王道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佛心に 부합’하는 것이라 하였다.⁶⁷⁾ 최치원의 儒·佛을 같은 같은 가치로 보는 관념은 「심원사 수철화상탑비」(893, 진성왕 7)에서 ‘유교를 뿌리로 하고 불교를 줄기로 하는’ 그것에 상응한다.

그후 최치원은 진성왕 7년(893)을 기점으로 다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곧 최치원은 「鳳巖寺 智證大師塔碑」(896, 진성왕 10)에서 ‘仁心이 곧 부처’라 하여 유교와 불교가 서로 통하는 것이지만, 그 詞에서는 ‘공자와 노자의 敎가 천하의 본보기이지만, 석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점을 보였다.⁶⁸⁾ 이러한 인식은 이후 최언위에게도 이어져, 「廣照寺眞澈大師碑」(937)에서 노자와 공자가 석가모니를 찬양하였다고 하거나,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943)에서 모든 종교와 方内の 모든 譚論이 正覺의 道를 이루는 불교에 미치지 못한다 하고, 「孔·老·莊子가 각기 자신의 敎인 一方에만 집착하여 마침내 三敎가 서로 통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평하는 데 이르렀다.

특히 최치원은 삼교 가운데 불교 우위의 관점을 보이면서, 경문왕이 국학과 화랑에서 명성을 떨쳤고, 삼교를 융회한 이로 꼽았다. 불교 우위의 관점은 최치원의 「海印寺 妙吉祥塔記」(895.7)에 보듯이, ‘법륜의 戒道는 크게 보아 호국을 으뜸으로 삼으니’라고 한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동 시기에 사문 승훈이 「五臺山 吉祥塔詞」에서 진성왕 3년(889)부터 진성왕 9년(895)까지의 난리와 병란에 대하여 修仙만으로는 魔軍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호국과 호법을 동일시한 불교계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67) 崔致遠 撰,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앞의 책, 114·135쪽.

68) 崔致遠 撰,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 이지관 역주, 1993, 앞의 책, 290·328쪽.

위의 塔詞에서 승훈은 호국과 호법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원만한 왕의 교화가 거듭되고 승려들의 희생으로 승려들은 불법을 지키고 결국 왕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승훈의 이념은, 이미 경문왕(861~875), 헌강왕(875~886), 정강왕(886~887), 진성왕(887~897) 4대에 걸쳐 신라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진성왕의 초청에 응하여 景福 2년(893, 진덕여왕 7) 경주에 들어와 3~4년 동안 국왕에게 설법하였던 순지의 불성론에 상응한다. 순지의 불성론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왕 11년(897)조에 전하는 ‘근년 이래로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봉기’한 상황이나, 「해인사묘길상탑」(895)에서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한 상황을 목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성왕이 출현하여 群賊을 항복시켜 나라의 경계가 편안해지고 다시 怨賊이 교만할 바가 없어지게 되고, 누구나 다 성불하고 부처가 시현하는 정화된 불국토를 이루는 신라 사회를 원하였다.⁶⁹⁾ 이는 승훈의 ‘나라와 삼보를 지키려는 승속의 바램’이고, ‘원만한 왕의 교화’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성왕 말기에 경문왕이 삼교 율회의 모범으로 부각된 것은, 경문왕이 진성왕의 부친이자 경문왕가의 실질적인 개창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진성왕 2년에 편찬된 『삼대목』에 경문왕의 치적을 그린 향가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이 많이 회자되었을 것이다. 경문왕의 치적과 향가가 어울어져 경문왕이 진성왕 말년에 다시 존숭되면서, 그가 국학을 진흥하고 화랑도의 현풍을 닦았으며, 원성왕과 현안왕을 위한 불사나 호국적인 황룡사구층목탑을 증수하는 치적을 남기고, 삼교를 율회한 이로 꼽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경문왕의 치적을 노래한 향가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은 ‘응림이 국선이 되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優遊四方) 본 미덕을 갖춘

69) 박남수, 2015, 「신라 하대 흥륜사 벽화 보현보살상과 순지의 보현행」,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36, 48~49쪽.

세 인물을 아킴으로써 헌안왕의 사위가 되어 왕위에 오른 사실'을 당대의 국선들이 칭송한 것을 『삼대목』을 편찬한 大矩和尚이 직접 향가로 지은 것이다.⁷⁰⁾ 그렇다면 당연히 『삼대목』에는 경문왕의 치적을 그린 위의 세 향가가 실렸을 것이고, 종래 경문왕이 칭송되던 화랑도의 진작이나 그 이후 지속된 유학 진흥책 등의 내용을 포괄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⁷¹⁾

한편으로 진성왕 11년(897) 하정사 金穎을 보내면서 당나라에 보낸 「당나라에 숙위하는 학생과 수령을 차견하여 입조하면서 올린 장계」(「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에서, 헌강왕 11년(885) 견당사 金僅을 따라 당에 갔던 金茂先·崔渙·崔匡裕와 首領 등의 유학기간이 끝났으므로 방환해 주기를 청하고, 아울러 崔愼之·金鶴 등 학생 8명과 祈綽·蘇恩 등 大小首領 10명의 국가감 입학을 요청한 것⁷²⁾은, 신라 정치사회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던 사정을 반영한다. 동 장계에서 ‘마을에서는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의논이 일어나지 않았다(鄉無毀校之議)’고 하거나, ‘배움을 우선으로 삼고 賢才를 구하는 것을 책무(興學爲先 求賢是務)’라고 일컫는 것은,⁷³⁾ 당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어진 인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었음을 보여준다.

70) 박남수, 2018, 「三國遺事 紀異篇 「長春郎罷郎」·「孝昭王代竹旨朗」·「48景文大王」 조의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9, 118~119쪽.

71) 『三代目』의 ‘三代’에 대해서는 신라의 시기구분 곧 상·중·하대의 개념으로 보아 왔으나, 이를 경문왕의 세 자녀의 연속적인 왕위 계승 곧 헌강왕-정강왕-진성여왕의 즉위를 찬양하고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權英五, 2007, 「新羅史 時期區分과 『三代目』」, 『한국고대사연구』 45, 174~183쪽) 필자로서는 경문왕의 치적을 노래한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이 『삼대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 경문왕과 헌강왕, 정강왕 3대를 노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경문왕의 화랑도에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헌강왕·정강왕대의 유학 진흥책 등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72) 최치원,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한국고전번역원 편, 앞의 책, 244·250~252쪽.

73) 최치원, 위의 글, 한국고전번역원 편, 위의 책, 246~247·251쪽.

이로써 볼 때에 진성왕 당시에 향리마다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학교 또는 지방 장관의 천거 등으로 당나라로의 습업 학생을 보내어, 관리로 등용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대의 당나라 국자감 습업은 국왕이나 진골 귀족의 자제에 한정되었다. 하대에 이르러 경덕왕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 높은 자리에 등용하는 재능을 읊은’ 「賢才를 구하는 부(求賢才賦)」를 지었거니와,⁷⁴⁾ 경덕왕의 인재 발탁의 정책은 헌강왕에게 이어져 두품 신분의 자제들을 당나라 국자감에 수학하도록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헌강왕은 유교를 숭상하던 국왕으로서 명성이 높았다. 『삼국사기』 헌강왕조에는 헌강왕의 국학 행차와 강론(헌강왕 5년, 879), 주군의 순행(879)과 혈성의 순수(879), 활쏘기의 참관(879), 임해전에서 거문고 연주와 시가회(881), 삼랑사에서의 시회(883) 등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헌강대왕의 6세에 대한 행적을 보여주는데, 그의 사후에 당나라로부터 태자 사부의 직임인 태부에 추증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⁵⁾

그는 속악과 지방의 정재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곧 개운포 지방의 처용가와 남산신의 상염무를 결합한 새로운 속악의 개발, 병서 『玉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군대의 출입과 관련된 의례에 소용된 가무인 玉刀鈴, 그리고 동례전에서의 지신의 춤 등을 정리하였거니와, 여기에는 개운포의 처용이나 중앙의 지백 등 무척을 불러 들여 파격적인 6두품의 급간이란 관등을 제수함으로써 이룬 성과라고 할 것이다.⁷⁶⁾

아마도 고려 태조가 즉위 원년(918) 中冬에 팔관회를 개최하면서 신라 고사에 따라 백희가무와 함께 연희하였다는 四仙樂府⁷⁷⁾도 헌강왕 때

74) 최치원, 「謝恩表」, 한국고전번역원 편, 위의 책, 216~217쪽.

75) 박남수, 2014, 「신라의 독보적 예술을 완성시킨 국왕들」, 『새로 쓰는 예술사』, 글항아리, 76~77쪽.

76) 박남수, 위의 논문, 66~75쪽.

77) 『高麗史』 권 69, 志 23, 禮 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에 가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仙郎을 燃燈會·八關會와 함께 일종 國風·風俗·國粹로서 자부하였는데,⁷⁸⁾ 선랑의 명칭 또한 하대에 화랑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현강왕 당대의 도가적인 풍조와 맞물려 화랑들의 遊娛山水를 선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신라의 네 화랑을 四仙으로 지칭하고, 경문왕을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유교적 예악에 맞추어 가무로 정리한 것이 四仙樂府가 아닌가 추측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서 진성왕이 위홍의 죽음 이후에 소년 미장부 2~3인을 몰래 불러 淫亂하고 그 사람들에게 요직을 주어 국정을 맡겼다는 것은, 四仙樂府의 가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무렵 신라는 화랑도를 진작시키고자 하였거니와, 진성왕은 궁중 내에서 이를 연회하게 하면서 그러한 의지를 보였던 것인데, 그 가무가 유교적 예악과는 맞지 않은 까닭에 이를 음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⁷⁹⁾

78) 李基東, 1988, 앞의 논문; 1997, 앞의 책, 300~301쪽. 金相鉉, 1989, 「高麗時代の花郎認識」,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論文集』 10, 219~220쪽.

79) 『삼국사기』에서 ‘淫亂’의 용례는 본 진성왕 2년조와 같은 책 樂志에서 가야금의 신라 전래에만 등장하는데, 진성왕이 가야의 음악을 취한 데 대하여 ‘加耶王淫亂自滅, 樂何罪乎. 蓋聖人制樂, 緣人情以爲樽節, 國之理亂, 不由音調’라고 한 데서 살필 수 있다. 곧 가야의 음악이 淫亂하지만, 나라의 治亂은 音調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데서 음란의 용례를 살필 수 있다. 이에 진성왕이 소년 미장부 2~3인을 몰래 불러 들였다는 것은, 고려 태조 즉위 원년에 사선악부를 연회하게 하면서, 양가 자제 4명을 뽑아 禮衣를 입혀 열을 지어 뜰에서 춤추게 하였다(『破閑集』 권 下)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이들 소년 미장부 2~3인이란 사선악부를 연회하는 소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진성왕 2년(886) 조의 ‘王素與角干魏弘通, 至是常入內用事’를 ‘왕이 평소 각간 魏弘과 더불어 정을 통해 왔는데(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47쪽), [또는 좋아 지내더니(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5쪽)] 이때에 이르러서는 항상 안으로 들이고 일을 맡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通’의 용례는 ‘우호를 맺다’ ‘유통하다’ ‘내왕하다’ ‘교통하다’ ‘문장을 통하다’ 등으로서, ‘간통하다’로 사용하는 ‘強淫’ ‘野合’ ‘烝母’ 등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用事’란 ‘用權’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다는 뜻인 바, 본 문구는 ‘왕이 본디 角干 魏弘과 더불어 서로 내왕하더니, 이에 이르러 항상 내꺤에 들어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유학생들은 대체로 翰林이나 瑞書院, 崇文館 등에 문한관으로 봉직하거나, 근시직으로서 崔致遠, 朴居勿, 朴崑 등과 같이 侍讀이 되어 국왕을 보필하였다. 그밖에 당나라에 표문을 쓰거나 사신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최치원은 진성왕 8년 시무 10여조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아마도 최치원의 시무 10여 조에는 학교를 일으키고 인재를 발탁하는 정책 등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학교를 일으키고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며 국학을 진흥시키는 것은, 두품 신분을 교육하여 유학과 실무에 능한 관리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신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한편 진골 귀족의 자제들은 대체로 중고기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독자적인 교육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⁸⁰⁾ 貞元 18년(802, 애장왕3) 10월 16일 무렵 소성왕의 어머니 聖穆王太后가 국모의 儀表를 보이며 三學으로 자제들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삼학이란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두루 지칭한 것으로서, 가정 내에서 유학에 대한 소양을 교수하였던 사정을 보여준다. 이는 향리의 학교에서 두품 신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유학 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중고기 이래 진골 귀족들의 교육 방법이었다. 그들은 신분제의 특권을 향유하며 관직에 나아갔다. 비록 국왕의 승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진성왕이 조카 효를 승계자로 지목하면서 ‘친족을 친하게 여겨야 하는 도리를 피하기는 어렵다(難避各親其親)’고 하거나 ‘외부에서 굳이 구할 것이 없이 바로 내부에서 천거한다(不假外求。爰從內擧)’고 한 것,⁸¹⁾ 그리고 효공왕이 ‘9족을 화목하게 한 [以親九族] 일을 양모하며 고모 垣이 근사하게 행했다’(希驥於以親九族 叔

80) 중고기 진골 귀족 자제의 경우 誦經과 習射 등은 어릴 때부터 승려를 초치하는 형태로, 그리고 두품 이하 신분의 자제들은 독학 이후 스승을 찾아 학습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박남수, 2008, 「신라 중고기 화랑도의 교육과 출사」, 『역사교육』 108; 2013, 앞의 책, 438~442쪽).

81) 최치원, 「讓位表」, 한국고전번역원 편, 앞의 책, 200쪽.

坦庶幾)⁸²⁾고 일컬은 것은, 당시 신라 정치 사회에서 진골 귀족 신분 위주의 관료 등용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리 등용에 있어서 진골 귀족의 신분에 의한 등용과 유학의 학교 및 당나라 습업 학생 위주의 인재 선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 이는 종래 화랑도의 교육을 통하여 화랑 뿐만 아니라 낭도까지도 채용하였던 방식이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사실 진성왕은,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을 ‘신이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도리를 잃고 아랫사람을 제대로 다스리는 방도를 어긴 탓’이라고 일컬으며 양위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고,⁸³⁾ 최언위는 효공왕 말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성스러운 임금(聖主)이 없음을 고슴도치들이 모인 것 같았으며, 아래로는 용렬한 무리들만 모여 있다’고 지적하였다.⁸⁴⁾ 이는 당시에 관리 등용 정책의 모순에 따라 우수한 인재들이 조정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군신들은 제각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통일된 정책이나 방책이 나올 수 없어, 신라 왕실이 지향하였던 왕도 정치에 실패한 사정을 꼬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최치원은, 화랑도와 같은 신라 전통적인 가치와 불교가 성행하던 신라사회에서 유교의 예악을 실천한 군주로서 헌강왕대의 정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헌강왕이 죽은 이후로 불교에 비추어 유교의 이념을 투영함으로써, 儒·佛이 동일한 것이라고 일컬었다. 진성왕 초기에는 『삼대목』의 편찬 등으로 화랑도를 부흥하고자 하였거니와, 그 과정에 효종랑의 일화가 사회적 미덕으로 칭송받고, 회자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진성왕 3년 이후 잇따른 가뭄과 흉년, 도적들의 발호로 국가 재정이 마비되고 군대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가 화랑도를 지원할

82) 최치원, 「謝恩表」, 위의 책, 223쪽.

83) 최치원, 「讓位表」, 위의 책, 199쪽.

84) 최언위,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조선총독부 편, 앞의 책, 172쪽.

방도는 없었다고 본다. 더욱이 화랑도의 절대적 후원자인 화랑 가문의 진골 귀족들도 지방의 장전에서의租를 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랑도의 운영은 더이상 불가능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제 군대의 조직이 와해되어 지방 유지자의 개별적인 충성에 기대어 각 지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왕도(경주)를 제외한 길이 막힌 상황에서 귀족들의 사병이나 화랑도의 동원은 어려웠다고 본다.

이에 유교의 예악이나 도가의 은일, 그리고 이미 선가적인 경향에 빠진 화랑도로는 신라 사회에 닥친 국난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치원이 불교 우위의 삼교융회론을 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국과 호법을 동일시한 불교계의 성왕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때에 다시 경문왕을 삼교 융회한 모범으로 꼽고, 화랑도의 현묘함을 강조하였으나, 중고기 무사도의 발양으로서 칭송되던 화랑도는 기대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에 최치원이 인식한 화랑으로 명성이 높은 四仙이나 鸞郎은 광동순의 「八關會仙郎賀表」에서 보듯이 이미 ‘謫仙’으로서 일컬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거니와,⁸⁵⁾ 당대에 『仙史』나 『仙記』, 『仙籍』 등에 진승된 仙郎(화랑)들은 이미 인재 양성의 사회적 목적을 상실하고, 효종랑과 같이 무리지어 遊娛하거나 善德을 베푸는 존재로만 각인되었으리라 여겨진다.

85) 郭東珣, 「八關會仙郎賀表」, 『東文選』 권 31, 表箋.

맺음말

본고에서는 신라 멸망기에 화랑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곧 화랑도의 사병적 성격을 강조하거나, 국학의 발달로 화랑도의 특권의식이 감퇴되었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신라 마지막 화랑으로 전하는 효종랑의 일화가 어떻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효행 내지 효선편에 전승되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화랑도의 사병적 성격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효종랑의 정치적 진출과 함께 하대의 정치과정을 살피고, 국학의 발달로 화랑도의 특권의식이 감퇴되었다는 견해와 관련하여서는 하대의 유·불·선의 사조에 대한 인식 및 인재 발굴의 변화상을 통하여 화랑도의 변화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효종랑의 일화는 다른 효행전과 다르게, 효녀 지은에 대한 효종랑의 사적인 구휼을 함께 서술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삼국사기』 효녀지은전은 다른 효행전과 마찬가지로 출신, 성품, 효행의 내용, 표창의 순으로 서술하였지만, 「성각전」 뒤에 논찬을 붙여 몸을 훼손하여 효행하는 것을 비판하여 유교적 관념을 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녀지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효종랑의 가계 등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매우 정체화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200여 명에 이르는 삼대 화랑의 전기에 전하는 ‘美事’ 가운데 하나로서 당 황실에 올린 표문을 바탕으로 기술된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삼국유사』의 효선편은 불교의 효의 관념을 드러낸 것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생전의 효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극락에 왕생하는 공덕을 짓는 것까지를 孝善으로 일컬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빈녀양모」의 일화는 빈녀에 초점을 맞춰진 전승으로서, 그녀가 마침내는 집을 희사하여 양존사를 건립하였다는 데서 빈녀의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날의 효행과 함께 전승되어 정리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효종량의 일화는 전국적인 한해와 흉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진성왕 3년 이후의 사실로 이해하였다. 다만 『삼국유사』에서 효종량의 낭도를 ‘문객’이라 한 것은 고려시대 관념의 투영으로 보았다. 또한 乾寧 1~2년(894~895) 무렵 해인사의 난리에 대한 「五臺山 吉祥塔詞」와 그 음기에서 당시 도가적 풍조로 인한 승속들의 隱逸로는 도적의 발호나 전쟁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확인하고, 국가의 군사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고기처럼 낭당에 이들 화랑도출신을 召募兵으로 불러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었음을 살폈다. 또한 박씨왕의 출현과 관련하여 화랑도 세력이 왕위계승전에 관여하였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신덕왕은 왕족이었던 진골 귀족 김예겸의 의붓 아들이므로 예겸의 성씨를 따름으로써, 신라 정치사회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신덕왕의 즉위는 당시 執事省侍郎 瑞書院 學士였던 최언위의 증언에 따라 쿠데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덕왕의 즉위는 문성왕계와 동일한 예영계 내에서 이미 왕위 서열에서 밀려난 효종량 등 균정계가 예겸의 아들인 신덕왕을 옹위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견훤이 경애왕을 자진케 하면서 그 족제인 효종의 아들 김부를 세웠던 것은, 효종량 일족과 견훤의 내통이나 화랑 출신 세력의 비호보다는, 신덕왕가의 본성인 박씨를 문제로 삼았던 진골 귀족 내에서의 불만과 ‘왕위 계승은 내부에서 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영계 내에서 문성왕의 원예였던 김부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셋째, 중·하대 신라사회는 본래 전통적인 화랑도와 불교가 융성하였으나, 현강왕이 유교적 예악을 중시함으로써 유교가 불교와 다르지 않다

는 관념이 생겨났고, 헌강왕이 죽고 나서 다시 불교가 흥하였으나 최치원은 유교와 불교가 같은 것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진성왕 초년에는 『삼대목』을 찬술하는 등 화랑도의 기풍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효종랑의 일화는 이 때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진성왕 3년 이후 가뭄과 흉년, 도적과 전쟁으로 인하여 불교계에서 호법이 곧 호국이라는 관념이 일었는데, 여기에는 전륜성왕이 나타나 신라의 난국을 타개하여야 한다는 순지의 불성론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최치원 또한 불교 우위의 삼교 융회를 주장하고, 그 모범으로 경문왕을 옥록과 현풍에 뛰어난 이로 밝혔던 것이다. 이는 당대의 현실에서 국학과 화랑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당시에 어진 인재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었고, 이를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당나라에 습업학생의 방환이나 파견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나라 유학생은 귀국하고서 대체로 翰林이나 瑞書院, 崇文館 등에 문한관으로 봉직하거나, 근시직으로서 侍讀이 되어 국왕을 보필하고, 당나라에 표문을 쓰거나 사신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진골 귀족들의 신분 위주의 관료 등용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우수한 인재들을 조정에 폭넓게 등용하지 못하고, 신분으로 조정에 참여한 진골귀족들의 용렬함으로 신라 왕실이 지향하였던 왕도 정치는 실패하였다. 진성왕의 양위나 효공왕의 죽음, 그리고 신덕왕의 죽음 등은 이러한 정치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유교 교육의 강화와 당나라 유학생 파견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종래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화랑도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고, 진성왕 3년 이후 잇따른 흉년과 도적들의 횡행으로 지방에 장원을 둔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었다. 이로써 종래 화랑도 운영의 주체였던 화랑 가문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 또

사학연구 제132호(2018. 12)

한 이들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닿지 못하였다. 더욱이 유교의 예악이나 도가의 은일, 그리고 이미 선가적인 경향에 빠진 화랑도로서는 신라 사회에 닥친 국난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바, 이 때에 경문왕을 삼교 융회한 모범으로 꼽고 화랑도의 현묘함을 강조하였지만 중고기 무사도의 발양으로서 칭송되던 화랑도는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補閑集』 『東文選』 『星湖僊說』, 『桂苑筆耕集』 『尙書』 『春秋左傳』 『魏書』 『宋書』 『隋書』 『舊唐書』 『賢愚經』
한국고전번역원 편, 2009, 『고운집』 1
朝鮮總督府 편, 1919, 『조선금석총람』 상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金龍善 편, 1993,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李智冠 역주, 1993·1994·1996,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高麗篇 1·3

2. 논저

-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李基白,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李基東,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정구복, 1999, 『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신호철, 2000,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김창겸, 2003, 『신라하대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
박남수, 2013,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권덕영, 2015, 『한국의 역사만들기 - 그 허상과 실상 -』, 새문사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今西龍, 1970,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盧泰敦, 1978, 「羅代の 門客」, 『한국사연구』 21 · 22
윤용혁, 1978, 「新羅 孝子向德과 그 遺蹟」, 『百濟文化』 11

사학연구 제132호(2018. 12)

- 장동익, 1982, 「金傳의 冊尙父誥에 대한 再檢討」, 『역사교육논집』 3
- 이기백, 1983,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동아연구』 2
- 전기웅, 1989, 「신라 하대 말의 정치 사회와 경문왕가」, 『부산사학』 16
- 金相鉉, 1989, 「高麗時代의 花郎認識」,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論文集』 10
- 조범환, 1991,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역사학보』 129
- 전기웅, 1994, 「新羅下代의 花郎勢力」, 『신라문화』 10 · 11
- 조범환, 1999, 「신라말 화랑세력과 왕위계승」, 『사학연구』 57
- 김기섭, 2001, 「『신라 흥덕왕대 孫順의 孝를 통해 본 ‘表彰’의 의미』,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 권영오, 2004,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6
- 권영오, 2005,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
- 권영오, 2007, 「新羅史 時期區分과 『三代目』」, 『한국고대사연구』 45
- 조범환, 2009,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 박남수, 2012, 「新羅 下代 王室의 祭禮와 元聖王 追崇의 정치사회적 의의」, 『사학연구』 108
- 박남수, 2014, 「신라의 독보적 예술을 완성시킨 국왕들」, 『새로 쓰는 예술사』, 글항아리
- 박남수, 2015, 「신라 하대 흥륜사 벽화 보현보살상과 순지의 보현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 박남수, 2018, 「『三國遺事』 紀異篇 「長春郎罷郎」·「孝昭王代竹旨朗」·「48景文大王」 조의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9

Abstract

Hwarang Hyojong(孝宗郎) and Hwarangdo(花郎徒) in the ruling years of Queen Jinseong of Silla

Park, Namsoo

This article aims to look into the change process of Hwarangdo(花郎徒) in the dying days of Silla. Hence, the anecdote of Hwarang Hyojong(孝宗郎) and his political advancement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end of Silla was examined. Additionally, the change process of Hwarangdo was also examined through the trend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the change in selecting talent.

As a result, it is found out that the story of poor woman supporting mother(貧女養母) in Samgukyusa(삼국유사) contains the buddhist idea of filial piety which includes the filial duty for living parents as well as praying for their parents' gentle and easy death whereas the story of Faithful Daughter Jieun(孝女知恩) in Samguksagi(삼국사기) reflects the idea of Confucianism.

The anecdote of Hwarang Hyojong implied the situation that the military system had been collapsing since the 3rd year of Queen Chin-song(眞聖王), through which it can be inferred that Silla had no enough military power in Nangdang(郎幢) as like the middle period of Silla. And King Sindeok, called King Park, who was a stepson of Kim Ye-gyeom(金义謙), aristocrat of Jingol, could appear in the politic circle of Silla by taking his step father's last name.

On the other hand, the anecdote of Hwarang Hyojong was plotted in the trend of reviving the spirit of Hwarangdo in the beginning of Queen Chin-song. However, even though Hwarangdo was set up for selecting human resource, the role of had been existed in name only because of reinforcement of the Confucianism education and increasing importance of dispatching students to Tang. Furthermore, financial support could not be provided any more according to the fall of national economic base. Therefore, Hwarangdo got into the music of Confucianism, seclusion of Taoism and Zen. As a result of it, they could not overcome the crisis confronting Silla.

Keywords : Hwarang Hyojong(孝宗郎), filial piety to parents in their living years and pray for the repose of their souls(孝善), Hwarangdo(花郎徒), King Sindeok(神德王), Kim Ye-gyeom(金乂謙), Queen Chin-song(眞聖王), Choe Chi-won(崔致遠), a Silla's student studying in the Tang(渡唐留學生)